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65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3. <보기 1>의 관점에서 <보기 2>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1> —

「황계사」는 조선 후기에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십이 가사 중 하나로서 노랫말에 반복과 병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후렴구가 첨가되기도 한다. 작가 의식에 기반해 일관된 주제를 담아내기보다 여러 갈래의 기존 작품들로부터 청중에게 익숙한 표현을 차용하고 조합해 노랫말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작품의 표현을 차용할 때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 차용한 표현들이 노랫말에 다수 삽입되면서 작품이 전달하려는 주제와 동떨어진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작품의 완성도보다 청중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보기2> —

조선 후기에 공존했던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 가운데 대중적으로 유행하여 당대 사람들에게 익숙했으며 「황계사」와 연관성을 지닌 작품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니 /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
- 작자 미상, 「상사별곡」

○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 너 오는 길에 무쇠성을 쌓고 ...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니 한 해도 열두 달이오 ...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春水滿四澤(춘수만사택) / 夏雲多奇峰(하운다기봉) / 秋月揚明輝(추월양명휘) / 冬嶺秀孤松(동령수고송)
- 도연명, 「사시」

○ 대사가 대노하여 왈, “네 용궁에 가 술을 먹으니 그 죄도 있거니와 오다가 석교상의 팔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희롱하고 ...”
- 김만중, 「구운몽」

○ 벽상에 그린 황계 수탉이 뒤나래 탁탁 치며 긴 목을 늘어서 회회쳐 우도록 노새그려 ...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①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야’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상사별곡」에 사용된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자네 일정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자네 어이 그리하야 아니 오던고’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청중에게 익숙한 사설시조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춘수가 만사택하니’, ‘하운이 다기봉하니’, ‘추월이 양명휘하니’는 도연명의 「사시」에서 한문 표현의 일부를 가져다 쓰면서 읽기 쉽게 ‘가’, ‘-하니’와 같은 토를 달아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 대사 성진이는 / 석교상에서 팔선녀 데리고 희롱한다’는 뒤이은 ‘지어자 좋을시고’와 함께 작품 주제와 거리가 먼 표현이지만 연행 현장의 통속적 유흥성을 반영해 「구운몽」에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병풍에 그린 황계 수탉이 두 나래 둥둥 치고 / 짝른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후리어 / 사경일점에 날 새라고 꼬피요 울거든 오려는가’는 기존 사설시조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원래 표현이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표현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입을 향한 사랑과 입과의 이별에서 비롯한 슬픔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 심리는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른 태도로 나타난다. (가)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결핍의 상황을 거듭 환기하면서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입의 홀륭함을 예찬하면서 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나)의 화자는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주로 드러내면서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자신보다 입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가)의 [A]는 ‘얼고자 녹고자’ 하는 ‘냇물’과 화자의 대비를 통해 ‘몸이여 홀로 지내가는구나’라고 말하면서 화자가 처한 결핍의 상황을 환기하고 있군.
- ② (가)의 [B]는 입의 모습을 사물에 빗대어 ‘높이 켜 / 등불 같구나’, ‘만인 비추실 모습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입의 홀륭함을 예찬하고 있군.
- ③ (가)의 [C]는 ‘가윗날’이라는 상황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입을 모시고 지내야 / 오늘날이 가윗날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입에 대한 사랑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의 [D]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못 오던가’,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라고 말하면서 이별이 지속되는 원인이 자신보다 입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나)의 [E]는 ‘달에게 ‘입 계신 데 명휘를 빌리려문 나도 보게’라고 말하면서 입을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